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고 선 강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년기 성인의 세대간
경제적 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양 은 영

중년기 성인의 세대간
경제적 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

고 선 강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양 은 영

認 准 書

양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 이전의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로서, 첫째, 중년기 성인의 세대간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와 자원을 이전하는 개인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중년기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 이전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중년기 성인이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빈도, 백분율,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범위등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또한 교차분석을 통한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문제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성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를 보면, 연령은 '40~50대'이며, '기혼'이고, '중·고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이며,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평균 가계 소득과 자산은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를 보면, 연령은 동거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40~50대', 비동거 자녀에게는 '60대, 혼인 상태는 '기혼'이며, 교육 수준은 동거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졸업', 비동거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두 경우 모두 '취업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평균 가계 소득은 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가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평균 자산은 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보다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

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남성'의 38.4%, '여성'의 14.0%가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였다. 연령은 '40~50대'는 35.3%, '60대'는 24.8%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 하였다. 혼인 상태의 경우에는 '기혼'이 36.6%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 수준에서는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44.3%)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취업자'가 '비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가계 소득과 자산이라는 두 변수에서 '상'에 속하는 집단들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를 보면 남성'의 54.1%와 '여성'의 39.3%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는 55.5%, '60대'는 46.8%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하였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인 경우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54.8%로 '이혼', '사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의 경제적 자원 이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과 자산에서는 '상'집단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년기 성인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자산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취업 여부, 가계 소득, 자산, 자녀수, 증여 및 상속 경험의 수혜 유무로 나타났다.

넷째, 중년기 성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이 각각 다른 세대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6
1. 세대 간 자원이전	6
1) 자원	6
2) 샌드위치 세대	7
2. 세대간 경제적 자원 이전에 관한 이론적 배경	9
1) 이타주의론	9
2) 사회적 교환 이론	10
3. 선행 연구 고찰	12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2
(1) 성별	12
(2) 연령	13
(3) 혼인 상태	14
(4) 교육 수준	14
(5) 취업 여부	15
(6) 소득 및 자산	16
(7) 자녀 수	17
2) 증여 및 상속 경험	17
3)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자원 교류	18
III. 연구 방법	19

1. 연구 문제	19
2. 연구 모형	20
3. 자료 및 연구 표본	21
4. 통계 분석 방법	22
5. 변수의 정의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1) 변수의 정의	24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5
IV. 연구 결과	27
1. 중년기 성인의 세대간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	27
2.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	30
3.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	33
4. 중년기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36
5. 중년기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39
6. 중년기 성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2
7. 중년기 성인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
8. 중년기 성인의 경제적 자원 이전이 다른 세대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에 미치는 효과	46
V. 결론 및 제언	49
1. 결론	49
2. 제언	53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변수의 정의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표 2> 중년기 성인의 세대간 경제적 자원이전 실태	27
<표 3>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	30
<표 4>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	33
<표 5> 중년기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36
<표 6> 중년기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39
<표 7> 중년기 성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2
<표 8> 중년기 성인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
<표 9> 중년기 성인의 경제적 자원 이전이 다른 세대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에 미치는 효과	47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20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적으로 어른 공경의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나 효 사상에 기반하여 노인 부양의 책임은 마땅히 자녀에게 있고,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왔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해주며, 자녀가 성장을 하여 성인이 되면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이것은 삼세대의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간 자원 이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발전해오면서 서구적인 가치관의 유입, 생활 양식의 변화, 핵가족화 등으로 과거에 보편적으로 여겨진 삼세대 가족관계내의 세대간 자원이전의 양상은 변화하였다. 특히, 1997년의 IMF 외환 위기 이후 대량 실업, 서민의 빈곤화 급증과 함께 가족의 해체는 자녀의 노부모 부양 행동을 변화시켰다(윤선영, 2008). 2006년 사회통계조사에서는 노부모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비율이 56.3%였으며, 생활비를 노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46.3%, 자녀가 제공해주는 비율은 53.3%이었다. 일년 후에 조사된 같은 통계 자료의 결과를 보면,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60.1%로 증가하였으며 생활비를 노인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61.3%, 자녀 또는 친척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34.1%의 비율로 나타나 노부모와 비동거비율과 노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삼세대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이전에 의한 부모 부양의 양상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비교하여 국가 복지

수준은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손병돈, 1997). 이러한 평가가 내려지는 원인으로 한 가지는 경제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을 추구하여 왔고, 그에 따라서 사회 복지와 같은 분배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한가지는 가족주의 전통이 강하게 유지되면서 복지 욕구의 많은 부분을 가족내에서 해결해왔고,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 책임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손병돈, 1999). 통계청에서 2006년에 조사한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자료를 보면 노부모 부양을 아들과 딸을 포함한 모든 자녀들이 해야 한다는 비율이 49.2%이고,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비율은 26.4%,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비율은 2.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노부모 부양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의 부양책임 의식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달리 성인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 비율이 낮아진 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기간은 길어졌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과 직접적인 물적 자원의 투자, 결혼·주택구매비용 등의 형태로 자원을 이전한다(김지연, 2006). 자녀들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학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전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례로 대학생 1,076명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모로부터 독립 시기를 늦추어 잡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대구인터넷뉴스, 2008). 부모로부터 독립할 시기를 '결혼 후'로 응답한 비율이 25.9%, 남학생의 경우에는 '취업 2-3년 후' 독립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결혼 후' 라는 의견이 3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대와 30대 취업자가 19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20대 실업률이 8.1%로 평균의 2배가 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통계청, 2009).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하는데, 2008년 통계

청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미취업상태인 미혼성인 자녀에게 용돈을 지원하는 비율(71.1%)이 부모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28.9%)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독립을 못할 경우 부모는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지원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자녀가 결혼이나 분가 후에도 부모로부터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의존하는 것과 연관된다(송은경, 2004).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삼세대 가족관계 안에서 자원 이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가 주로 중년기이다. 그러나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용이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정의할 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Erikson과 Levinson은 40세에서 60세로 보았고, Clinebell은 40세에서 65세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35세에서 60세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였고, 40세에서 60세까지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종합해 볼 때 대체적으로 35세에서 40세 사이를 중년기의 시작으로 하여 40세 이후부터 60세에 이르는 시기를 중년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홍지연, 2007).

Jung(1954)은 40세 전후를 행동과 의식의 탈바꿈이 발생하는 결정적 전환기로 보았으며 이 시기를 인생의 정점으로 칭하였다(김명자, 1992). 60대에는 은퇴라는 사회적 상실과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독립 등 가정적인 상실을 겪게 되므로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친족관계망은 매우 중요한 사회지원망이 된다(문아람, 2008). 중년기의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안정되는 것이 특징이었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녀들은 노부모와의 경제적 자원 교환에서 자신의 보상감이 불충분하다고 인지할 때 긴장과 갈등을 낳게 된다고 하였으며, 노부모 역시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공평성이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만족을 느낀다고 하였다(김명자, 1996).

이처럼 중년기는 사회적·가정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사회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뿐만 아니라, 성인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녀세대와 의존 욕구를 지니고 있는 노부모 양쪽 세대 중간에서 부모와 자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년기 세대를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 라고 부른다.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중년기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중년기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시기이다(김병윤, 2002). 중년기 시기가 되면 자녀들은 대학을 입학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므로 중년기 성인들은 자녀들의 높은 대학 교육비를 지원하고, 성인 자녀들의 결혼과 함께 주거 독립을 위해 자녀들의 주거 마련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신혼기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기춘·조은정(1992)의 연구에 남녀 모두 부모에게 결혼 비용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경우 부모가 결혼 비용을 전담한 경우가 37.5%, 여성의 경우 37.7%로 나타났다. 즉, 결혼적령기의 성인 자녀를 둔 중년기 부모들이 많은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년기에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함께 지워진다(하봉채, 2005).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부모 부양이라는 과제는 더욱 장기화되었다(옥경희, 1996).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저하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노부모가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 등을 제공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과 함께 자식의 도리를 다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따른다.

한편 중년기에는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년기 성인 자신의 은퇴준비를 하게 되며, 노후 생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며 미래를 계획한다. 중년기는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중년기 성인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위치는 절정에 이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시기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후 준비와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중년기 가정의 부담은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다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중년기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중년기의 가족 및 직업 관련 변인과 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은아, 2007)와 중년기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 대처 방안에 대해 연구(김태현, 강인, 1990), 중년기의 노후 준비에 관한 의식에 대해 조사한 연구(김미, 1992),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연구(옥경희, 1996) 등이 있다.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자원 이전 연구들은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김지연, 2006; 김지경·송현주, 2008; 김진, 2008; 김희삼, 2008; 배희선, 1998; 배희선·최현자, 2002; 성재민, 2006; 손병돈, 1999)와 계층별 사적이전(정의신, 2008), 기혼여성자녀와 노부모와의 시간자원이전(한지수·홍공숙, 2007)등이 있다. 즉 샌드위치 세대로서 중년기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는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세대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 이전을 중년기 성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삼세대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 이전 중 특히, 40세~65세의 중년기 성인을 중심으로 노부모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실태와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중년기 성인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의 상호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세대간 자원 이전

1) 자원

자원을 정의함에 있어 Maloch와 Deacon(1966)은 자원에 대해 목표에 도달하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Tucker와 Rice(1986)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산(asset)으로 정의하였다.

자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정에서 소유하고 사용되는 가족자원은 Deacon과 Firebaugh가 자원의 근원에 의거하여 분류한 인적 자원(개인의 특성과 속성) 대 물적 자원(개인이나 가족에 의해 소유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자원), Gross 등이 제안한 경제적 자원 대 비경제적 자원 등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문숙재 외, 2006). 이 중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자원 대 대인적 자원으로 분류한 Foa의 분류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류된 자원들은 그 자원이 교환되고 배분되는 방식에서 기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자원의 구체성이 강하면 경제적 자원으로 분류하였고, 상징성이 강하면 대인적 자원으로 분류된다.

자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징이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효용성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접근성이다. 제공되어질 서비스가 지리적·경제적·사회문화적·심리적·물리적인 접근이 가능한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상호 대체성이다. 자원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대개 하나 이상의 용도를 가진다. 다른 자원으로 전환되기도 하면서

창조도 되는 순환적 특징 즉, 이전, 교환, 대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홍성희, 김혜연, 김성희, 윤소영, 고선강, 2008).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 이전은 소득과 부를 교류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상속이나 증여 혹은 현금이나 현물,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용돈 및 현물 생활비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김지경, 송은경, 2004).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이 사망후인가, 사망전인가에 따라 구분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은 특정인이 사망후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고(이희배, 1995), 증여는 생존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손병돈, 1998).

한편 자원 이전은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적 이전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 보장 수혜 등을 의미하고, 사적 이전은 개인 또는 가족간에 반대 급부나 수혜 자격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이전을 의미한다(김기덕, 손병돈, 1995). 진재문(1999)은 사적 이전을 생활비, 용돈 등과 같은 현금 및 선물, 음식 등과 같은 현재 화폐 가치로 계산 가능한 이전액의 개념으로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적 이전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미려, 2007). 도시 근로자 가구 중 사적 이전을 수혜하는 가구의 비율이 약 39% 정도로 공적 이전을 수혜하는 가구보다 약 10배 높다고 한다(손병돈, 1999). 사적 이전 중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부모와 기혼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이전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원 이전은 자원을 제공하는 제공자와 자원을 이전받는 수혜자간의 교류를 말한다(박미려, 2007).

2)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

샌드위치 세대는 노인이 된 부모와 아직 자라고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중년의 부모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1955

년~1963년생)를 흔히 샌드위치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위로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부모에 대한 봉양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런 기대를 바라지 않는다(조창원, 2009)

대체로 50대의 성인은 두명의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명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자녀와 부모들은 샌드위치 세대의 관심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한다. 왜냐하면, 샌드위치세대들이 자녀와 노인 부모 중 한 쪽만 도와준다면 다른 한 쪽은 소홀해지기 때문이다(Grundy & Henretta, 2006).

이처럼 샌드위치세대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45-65세 사이의 중년기 성인들은 때때로 “명령하는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지위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오늘날 사세대(부모, 본인, 자녀, 손자녀)라는 삼세대 가족관계에서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의 부모, 자녀 그리고 손자들과의 관계에서의 중년기 성인의 위치는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과 상호 교환하는 중요한 서비스에서 독특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Dorothy, 1981).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노부모와 성인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샌드위치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2. 세대간 경제적 자원 이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삼세대 가족관계 안에서 가계간의 경제적 자원 이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신고전경제학파의 이타주의론(Altruism Theory)과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 있다.

1) 이타주의론

이 이론은 Becker(1991)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된 것으로 그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자원 이전을 가족원간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가족원간 소득 균등화의 기제로 보았다(김지연, 2006). 즉, 자원의 이전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원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고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수혜자일수록 자원을 더욱 많이 이전받게 됨으로 수혜자의 소득과 부(-)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이타주의론에서 '이타적'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데,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타인의 복지(well-being)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자신의 복지(well-being) 수준이 높아진다. 즉 '가'라는 사람의 복지 증진(well-being)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용으로 '나'라는 사람의 복지가 증진될 때 '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타주의론의 가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가족 안에 이타적인 가장이 있고 이기적인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데 가장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복지수준이 가장의 복지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가족구성원들이 즐겁게 잘 살아야만 이타적 가장도 즐겁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Becker는 경제 효용 함수로 이 관계를 표현했는데 이타적 가장의 효용 함수를 결정짓는 요소에 가족구성원의 효용 함수가 포함되는

것이다. 오직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만 효용이 증대된다고 가정하면, 이타적인 가장의 복지 수준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가장 자신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가족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Becker는 부모를 이타적 가장, 자녀들을 이기적 가족 구성원으로 가정하여 보상적 이타주의론을 설명하였다. 보상적 이타주의론은 부모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행복과 복지 증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만 복지증진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에게 이타적 부모가 금융 자산의 이전을 통해서 그 자녀의 소비를 촉진 시켜주면, 그 자녀의 복지가 증진되고 따라서 부모의 복지감도 증진된다는 것이다(고선강, 2002 재인용).

이타주의론을 샌드위치 세대의 자원 이전에 적용하면 이타주의적 중년기 성인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경제력이 낮은 노부모와 자녀에게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김지연, 2006). 특히, 노부모가 건강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홀로 사는 경우,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다(김진, 2008). 자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더욱 이전을 하게 되는 반면, 그 자녀의 소득이 어떤 원천에 의해서든 증가하게 되면 자원 이전을 줄이게 된다(김지경, 송은경, 2004).

2) 사회적 교환 이론

가계간의 경제적 자원 이전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론은 사회적 교환 이론이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 교류에서 보상과 기대를 극대화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극소화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얻

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려 한다. Blau(1964)는 관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가치 있는 보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일종의 경쟁을 교환이라고 개념화하였고, Thibaut와 Kelley(1959)는 교환 관계에서 개인의 행동은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된다고 하였다.

Blau는 교환 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교환 이론에서 중요시 되는 '호혜성'과 '공정성'을 설명하였다. 어떤 제공자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면 후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자에게 해야된다는 것을 호혜성이라 한다(김진, 2008). 사람들이 서로 보상을 많이 교환하면 할수록 호혜성에 대한 의무가 나타나며 교환 관계는 공정한 교환 규범에 의하여 관장된다고 하였다. 교환 이론에서 상호 호혜성은 개인간의 관계에서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다. 돌아올 보상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장기적인 보상일수도 있다(Sabatelli & Shehan, 1993). 그 이후에는 투자 대 이익의 비율이 당사자의 기대와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교환 이론은 호혜성, 공정성, 그리고 의사결정이 결합하여 만족을 결정하게 된다.

교환이론에서는 자원의 제공자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이용해서 수혜자로부터 미래에 되돌아 올 자원에 대한 흥정을 한다고 본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금융 자산의 이전도 그것이 주는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이 더 클 때 성립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부자는 수혜자의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 높은 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금융 자산의 이전을 한다고 본다(고선강, 2005에서 재인용). 교환 이론에 의하여 경제적 자원이 이전되는 경우 부모는 재산을 많이 가진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박미려, 2007).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이전을 하는 경우를 보면, 자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준 부모에게 자녀 또한 보상의 성격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전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환이론을 샌드위치 세대의 자원 이전에 적용하면 중년기 성인이 노부모

에게 자원이전을 하는 데에 노부모의 건강과 소득이 영향을 주었는데, 상속이 가능한 자산이 적고, 병중인 노부모들은 자녀의 관심과 서비스를 덜 받는 반면 상속이 가능한 자산이 많으면서 병중인 부모들은 자녀의 관심과 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자녀로부터 자원을 제공받는 것에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하여 준다(배희선, 최현자, 2002). 또한 부모가 자신들에게 보다 잘하는 자녀에게 많은 자원이전을 하며, 이러한 동기에 의해 경제적 자원이 제공되는 경우 재산을 많이 가진 부모는 더 많은 자원을 자녀에게 제공한다(김순미, 박미려, 2008).

3. 선행 연구 고찰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성별

경제적 자원이전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 중 자원제공자의 성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순미·박미려(2008)는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 유형별 실태와 교류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다른 가구원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지경과 송현주(2008)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 404명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사적 소득 이전의 유무와 이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 아들인 경우 80.8%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지만 딸인 경우는 아들의 약 절반수준인

42.6%만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

경제적 자원 이전에 관한 연구에서 자원 제공자의 연령은 각 연구마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부모의 연령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재문(1999)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의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대상자의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가족의식, 효의식, 전화횟수, 방문횟수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사적 이전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김지경과 송은경(2004)의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교류 여부와 교류액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자녀에게 교류한다고 대답한 가구주 연령이 자녀에게 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집단보다 평균 2년정도 연령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의 자원 제공자인 자녀의 연령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상기한 진재문(1999)의 연구와 김지경과 송은경(2004)의 연구에서 40대 미만의 성인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녀들이 어리고 가계 지출이 비교적 적은 시기여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계층별 경제적 자원 교류 결정 요인을 분석한 문숙재와 김지연(2006)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에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3) 혼인 상태

고선강(2005)이 미국의 위스콘신종합연구조사를 사용하여 52세의 성인 자녀와 그의 부모간의 자원 이전 행동에 관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녀의 혼인 상태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때에 성인 자녀가 미혼이거나,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 수준

김진(2008)은 고령화연구패널(2006년)을 사용하여 생존 자녀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4060명을 대상으로 한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 지원 행위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육 수준 변인이 지원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인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재문(1999)의 연구, 강성진과 전형준(2005)이 한국가구경제패널조사(KHPS)와 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외환 위기 전후에 걸쳐서 한국의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동기와 상관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두 부모와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서로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문숙재·김지연(2006)의 연구에서도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는데, 이는 AHEAD(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를 분석하여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이전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McGarry 와 Schoeni(199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부모와 자녀간의 경제적 교류를 파악하기 위한 김지경과 송은경(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자녀가구의 가구주 학력이 고졸 미만의 학력인 경우보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을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취업 여부

김지경과 송현주(2008)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 404명을 대상으로 사적 이전 소득의 유무와 이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때, 자녀가 임금 근로자로 취업했거나 비임금 근로자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비취업 상태에 있는 자녀에 비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2006)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 부모와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는 성인 자녀가구 2,485가구를 대상으로 성인 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자원 교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자원 제공형 가구 여부를 밝히는 데에 취업여부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숙재와 김지연(2006)의 연구 또한 가구주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반면에 고선강(2005)이 미국의 위스콘신종합연구조사를 사용하여 적어도 한 사람의 부모가 살아있는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자원 이전행동에 관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취업을 한 성인 자녀가 취업을 하지

않은 자녀보다 부모에게 금융 자산의 이전을 제공할 확률이 적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6) 소득 및 자산

소득과 자산 변수는 경제적 자원 이전의 동기에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이전의 방향과 관계없이 자원 제공자의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손병돈(1997)의 가족간 소득 이전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경제적 이전의 가능성은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cGarry와 Schoeni(1995)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 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에서 중·고령자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를 보면, 김지경과 송은경(2004)은 월 소득이 많거나 금융 자산이 많은 자녀일수록 부모와 상호 교류를 하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 상호 교류를 하거나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숙재와 김지연(2006)의 연구에서도 가구주의 순자산의 많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자녀 수

경제적 자원 이전 제공자의 자녀 수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수혜받는 것 사이에 반대되는 성향을 보여주었다. 박미려(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 수가 많을 경우 소득을 이전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전받는 소득의 양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선강(2005)의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금융 자산을 이전할 때에 성인 자녀의 자녀 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증여 및 상속 경험

중년기 성인이 자녀에게 증여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자원 이전의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배희선, 1998). 선행 연구에서 중년기 성인이 자녀에게 증여를 제공했을 때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는 것과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 두 가지 경우로 요약된다. 전자의 경우,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2005년)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사적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윤선영(2008)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가 증여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에는 배희선(1998)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가 있는 남녀 476명을 대상으로 면접과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기존 증여액의 규모가 클수록 앞으로 이전될 예상액의 규모가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자녀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3)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자원 교류

김지경과 송은경(2004)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자원 교류에 대해서 자녀는 주로 소액의 자원을 일상적으로 부모에게 이전하는데 반해서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양방향 교류의 경우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만 하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만 하는 한 방향으로 이전하는 경우보다 교류 액수가 많다고 하였다. 김정석과 김익기(2000)가 부모들이 성인 자녀와 맺고 있는 지원 교환의 형태에 따라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지수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60세 이상 1,0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경우보다 자녀와 지원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김지연(2006)은 성인 자녀 가구의 55.5%가 부모와 경제적 자원 교류를 한다고 밝혔고, 가장 대표적인 교류 유형은 가구주 부모와 배우자 부모 양쪽 모두에게 경제적 자원을 받지는 않고 제공만 하는 유형으로 그 비율은 35.5%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론과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취업 여부, 가계 소득, 자산, 자녀 수를 변인으로 정하고, 그리고 증여 및 상속경험의 유무와 부모와 자녀와의 경제적 자원 교류 유무를 독립 변수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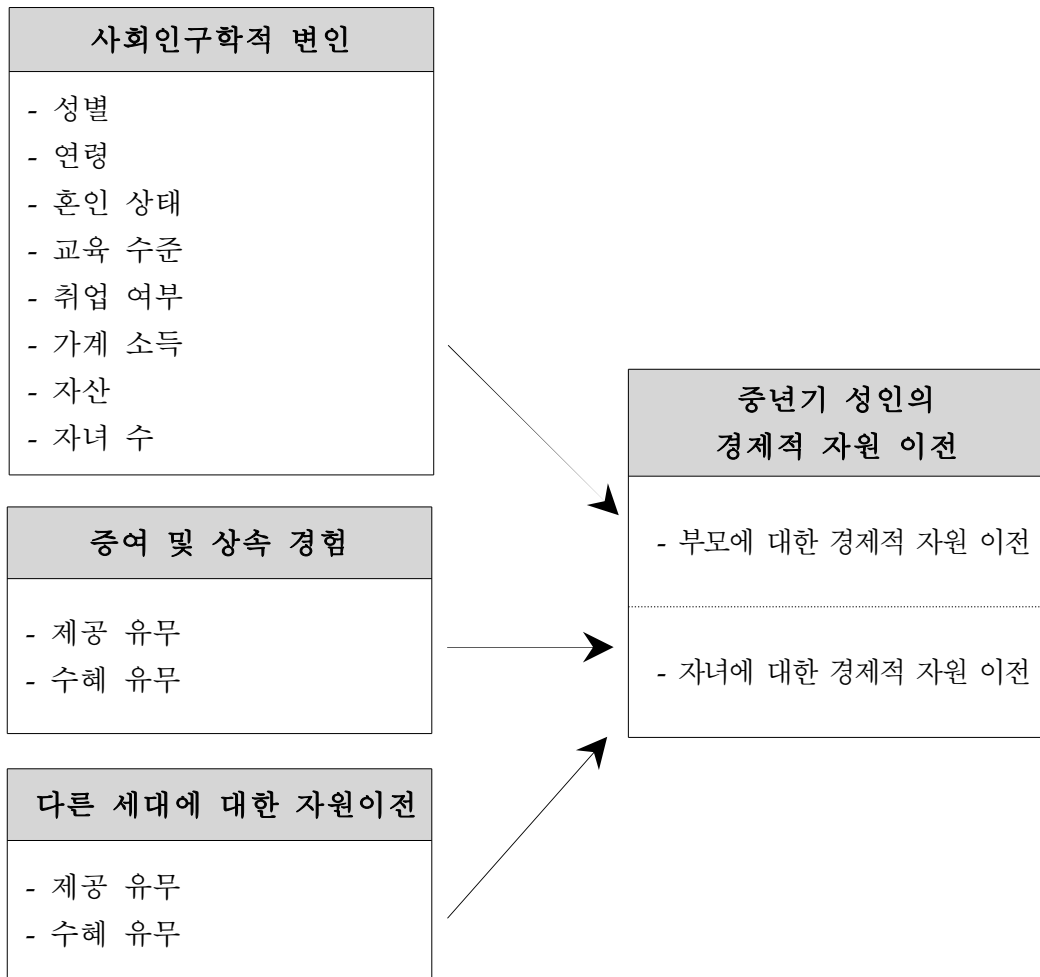
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년기 성인의 세대간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는 어떠하며, 자원을 이전하는 사람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년기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 이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중년기 성인이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 모형



<그림 1> 연구모형

3. 자료 및 연구 표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기 성인의 삼세대 가족관계내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차년도 자료(2007년도)를 분석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은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있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이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중 섬과 시설단위의 조사구를 제외한 24,995개 일반조사구(1,420,999 가구)에서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110가구가 조사대상가구로 추출되었고, 만 50세 이상 가구원과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가구이며 표본은 총 4,471 가구에서 연령이 40~65세인 중년기 성인을 가구당 1인씩 추출하여 중년기 성인 2,012명의 연구 표본을 구성하였다. 중년기 성인의 부모에 대한 자원 이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1인의 생존 부모가 있는 중년기 성인 670명을 추출하였고, 중년기 성인의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1인의 자녀가 있는 중년기 성인 1,954명을 추출하였다.

중년기 성인의 자녀에게 제공 유무와 수혜 유무가 부모에게 자원이전 하는 데에 미치는 효과와 중년기 성인의 부모에게 제공 유무와 수혜 유무가 자녀에게 자원이전 하는 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적어도 1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고, 1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 651명을 연구표본으로 추출하였다.

4. 통계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년기 성인이 그들의 부모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범위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중년기 성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통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유무를 종속 변수로 하는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변수의 정의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변수의 정의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변수군	변수명	정의 및 측정 방법	비율	측정 기준
종속 변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유무		유=1 (n=296) 무=0 (n=1,716)	14.7% 85.3%	2006.1.1 ~ 2006.12.31 조사지점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유무		유=1 (n=1,001) 무=0 (n=1,011)	49.8% 50.2%	
독립 변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성)	남=1, 여=0	70.4%, 29.6%	
		연령	연속변수	평균 59.2세	현재
		혼인 상태(비혼)	기혼=1 이혼=0 사별=0	74.5% 5.6% 19.9%	현재
		교육 수준 (중등/고등)	1=무학/초등 2=중등/고등 3=대학/대학원	38.0% 49.9% 12.1%	현재
		취업 여부(비취업자)	취업자=1, 비취업자=0	72.2% 27.8%	현재
		가계 소득(중)	상= 상위 중= 중간 하= 하위 무응답	평균 약 20% 평균 21%~60% 평균 약 20%	2006.1.1 ~ 2006.12.31
		자산(중) ¹⁾	상= 상위 중= 중간 하= 하위	평균 약 20% 평균 21%~60% 평균 약 20%	일생
		자녀 수	연속변수	평균 2.7명	현재
	자원 이전	자녀에게 제공 유무	유=1, 무=0	49.8%, 50.2%	2006.1.1 ~ 2006.12.31
		자녀로부터 수혜 유무	유=1, 무=0	59.6%, 40.4%	2006.1.1 ~ 2006.12.31
		부모에게 제공 유무	유=1, 무=0	14.7%, 85.3%	2006.1.1 ~ 2006.12.31
		부모로부터 수혜 유무	유=1, 무=0	1.7%, 98.3%	2006.1.1 ~ 2006.12.31
	증여 및 상속경험	제공 유무	유=1, 무=0	26.9%, 73.1%	일생
		수혜 유무	유=1, 무=0	30.7%, 69.3%	일생

1) 자산=기타소유주택자산가치+ 사업체자산가치+ 기타부동산자산가치+ 금융자산총액+ 금융기관 예·적금시 가총액+ 개인연금시가총액+ 저축성보험불입액시가총액+ 적립편금납부금시가총액+ 주식투자자금시 가총액+ 유가증권시가총액+ 빌려준돈/갚돈시가총액+ 기타금융자산시가총액+ 기타자산자산가치총액-총부채잔액

1)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중년기 성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유무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유무이다. 대상자가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부모(자녀)에게 현금이나 현물 지원을 한 적이 있는가' 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위의 문항에 대해 '있었다' 또는 '없었다'로 응답하였다. '있었다'에 응답한 경우 연간 총액을 기입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원 이전 유무, 증여 및 상속 경험의 유무이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연령을 기재토록 하였다.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 '이혼', '사별', '미혼'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배우자 있음'을 '기혼'으로 분류하였다. 교육 수준은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으로 응답하였다. 취업 여부는 '비해당', '취업자', '비취업자'로 구분하였다. 가계 소득은 한 해 동안의 가계의 총소득을 측정하여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상'은 상위 평균 20%, '중'은 21%~60%, '하'는 하위 평균 20%로 구분하였다. 자산은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측정하였다. 자산 또한 '상', '중', '하' 세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상'은 상위 평균 20%, '중'은 21%~60%, '하'는 하위 평균 20%로 구분하였다. 자녀 수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생존하는 자녀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자원 이전 유무를 살펴보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의 제공 유무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의 수혜 유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의 제공 유무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의 수혜 유무를 변수로 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은 '작년 한 해 동안 부모(자녀)에게 현금이나 현물 지원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라는 문항과 '부모(자녀)에게 현금이나 현물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있었다' 또는 '없었다'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있었다'에 응답한 경우 연간 총액을 기입하게 하였다.

증여의 제공 유무는 '일생동안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준 적이 있는가'에 대해 '있었다', '없었다'로 응답하였다. 증여 및 상속의 수혜 유무는 '일생동안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있었다', '없었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종속 변수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한 경우는 296명(14.7%)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716명(85.3%)이었다.

성별의 구성을 보면 남성은 70.4%, 여성은 29.6%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9.2세이었으며, 혼인 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74.5%, 이혼한 경우가 5.6%, 사별이 19.9%를 나타내었다. 교육 수준은 무학·초등학교 졸업자가 38.0%, 중·고등학교 졸업자는 4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대학졸업이상은 12.1%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72.2%,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27.8%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자녀 수는 평균 2.7명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는 50.2%, 그렇지 않은 경우는 49.8%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받은 경우는 59.6%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는 14.7%,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는 85.3%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와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1.7%, 그렇지 않은 경우는 98.3%의 비율로 나타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받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증여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9%, 그렇지 않은 경우는 73.1%로 나타났다. 증여 및 상속을 수혜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7%, 수혜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69.3%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IV. 연구 결과

1. 중년기 성인의 세대간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중년기 성인 2,012명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중년기 성인이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빈도와 자원이전을 하는 경우 제공하는 액수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동거부모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중년기 성인의 자원 이전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2,012명의 중년기 성인 중 동거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 경우는 3.5%로 나타났으며, 중년기 성인이 한 해 동안 동거하는 부모에게 이전한 금액은 평균 1,000,850원이었다.

<표 2> 중년기 성인의 세대간 경제적 자원 이전 실태

(N=2,012)

	제공여부	빈도(백분율)	제공 액수	
			금액	빈도(%)
동거 부모에 대한 자원 이전	유	71 (3.5)	~ 250,000원이하	14(19.72)
			~ 500,000원이하	20(28.17)
			~ 1,000,000원이하	21(29.58)
			~ 2,000,000원이하	9(12.68)
			~ 5,000,000원이하	4(5.63)
			5,000,000원초과~	3(4.22)
			평 균	1,000,850원
			중 위 수	600,000원
			표준편차	1,327,460원
	범 위	7,100,000원		
	무	1941 (96.5)		
	제공여부	빈도(백분율)	제공 액수	
비동거 부모에 대한 자원 이전	유	230 (11.4)	금액(천원)	빈도(%)
			~ 250,000원이하	36(15.65)
			~ 500,000원이하	51(22.18)
			~ 1,000,000원이하	46(20.00)
			~ 2,000,000원이하	45(19.57)
			~ 5,000,000원이하	42(18.26)
			5,000,000원초과~	10(4.34)

			평 균	1,563,200원
			중 위 수	1,000,000원
			표준편차	2,300,150원
			범 위	23,950,000원
	무	1782 (88.6)		
	제공여부	빈도(백분율)	제공 액수	
			금액(천원)	빈도(%)
동거 성인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유	557 (27.7)	~ 250,000원이하	36(6.46)
			~ 500,000원이하	34(6.10)
			~ 1,000,000원이하	24(4.30)
			~ 2,000,000원이하	66(11.85)
			~ 5,000,000원이하	122(21.91)
			5,000,000원초과~	275(49.38)
			평 균	7,176,390원
	중 위 수	5,000,000원		
	표준편차	6,981,950원		
	범 위	42,569,000원		
무	1455 (72.3)			
	제공여부	빈도(백분율)	제공 액수	
			금액(천원)	빈도(%)
비동거 성인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유	528 (26.2)	~ 250,000원이하	132(25.00)
			~ 500,000원이하	149(28.22)
			~ 1,000,000원이하	95(17.99)
			~ 2,000,000원이하	77(14.59)
			~ 5,000,000원이하	35(6.63)
			5,000,000원초과~	40(7.57)
			평 균	1,853,800원
	중 위 수	500,000원		
	표준편차	4,593,940원		
	범 위	49,990,000원		
무	1484 (73.8)			
	제공여부	빈도(백분율)	제공 액수	
			금액(천원)	빈도(%)
양쪽 다 주는 경우 (n=663)	유	528 (79.6)	~ 250,000원이하	101(19.13)
			~ 500,000원이하	135(25.57)
			~ 1,000,000원이하	78(14.77)
			~ 2,000,000원이하	80(15.16)
			~ 5,000,000원이하	63(11.93)
			5,000,000원초과~	71(13.44)
			평 균	2,758,967원
	중 위 수	755,000원		
	표준편차	6,080,890원		
	범 위	54,980,000원		
무	135 (20.4)			

반면,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 경우 11.4%로 동거 부모 보다는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경제적으로 아직 부모에게 의존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부모에 대해 자녀로서의 지원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부모와 동거를 하지 않는 자녀보다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빈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동거 부모에게 1년 동안 이전한 금액의 평균은 1,563,200원이었다.

다음으로, 성인 동거 자녀와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자원 이전 실태를 살펴보면, 동거 자녀에게 자원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비율은 27.7%이며, 제공하는 평균 금액은 연간 7,716,390원이었다. 비동거 자녀에게 자원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비율은 26.2%로, 동거 자녀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와 비율이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비동거 자녀에게 연간 제공하는 평균 금액은 1,853,800원이었다.

중년기 성인이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동거 부모 또는 비동거 부모 적어도 한쪽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고, 동거 자녀 또는 비동거 자녀 적어도 한쪽에게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가 663명이었다. 이들 중 부모와 자녀 양쪽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은 79.6%로 나타났고, 양쪽 모두에게 연간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의 평균 금액은 2,758,967원이었다.

2.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

<표 3>의 전체 대상 2,012명 중 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한 71명의 중년기 성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95.8%로 4.2%의 '여성'보다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3>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

(N=301)

특 성		동거 부모에게 자원 이전 (n=71)				비동거 부모에게 자원 이전 (n=230)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 별	남	68	95.8			202	87.8		
	여	3	4.2			28	12.2		
연 령	40~50대	50	70.4	57.2	3.8	168	73.0	56.9	3.9
	60대	21	29.6			62	27.0		
혼 인 상 태	기혼	61	85.9			215	93.5		
	이혼	8	11.3			3	1.3		
	사별	2	2.8			12	5.2		
교 육 수 준	무학/초등	16	22.5			36	15.7		
	중등/고등	40	56.3			141	61.3		
	대학/ 대학원	15	21.1			53	23.1		
취 업 여 부	취업자	63	88.7			202	87.8		
	비취업자	8	11.3			28	12.2		
가계소득		42,869,650원		40,341,379원		52,264,250원		41,713,561원	
자산		132,603,690원		497,824,880원		152,622,670원		420,387,340원	

연령을 보면 '40~50대' 중년기 성인의 비율이 70.4%, '60대'의 비율이 29.6%로 '40~50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평균 연령은 57.2세였다. 혼인 상태는 '기혼'의 경우가 85.9%로 '이혼' 11.3%, '사별' 2.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56.3%로 절반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다. 취업 여부 변인을 보면, '현재 취업한 경우'는 88.7%로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가 비취업 상태에 있는 자녀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이 더 활발하다는 김지경과 송현주(2008)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동거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연간 가계소득은 평균 42,869,650원이었고 소유 자산의 평균은 132,603,690원이었다. 이를 통해 동거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은 현재 연령이 '40~50대'이며, '기혼'이며, 학력은 '중·고졸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평균 가계 소득 42,869,650원과 평균 자산 132,603,690원의 '남성'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동거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의 중년기 성인의 특성을 보면, 전체 2,012명 중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한 경우는 230명이었다. 이 경우 또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87.8%로 더 높았고 연령 또한 '40~50대'의 연령대가 7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0대'가 27.0%이었다. 평균 연령은 56.8세였다. 혼인 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93.5%였고,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61.3%로 절반이 조금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87.8%를 차지하였다. 연간 가계소득은 52,264,250원이었고, 평균 자산은 152,622,670원이었다.

이를 통해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은 현재 연령이 '40~50대'이며, '기혼'이고, 학력은 '중·고졸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평균 가계 소득은 52,264,250원,

평균 자산은 152,622,670원인 '남성'임을 알 수 있다.

동거 부모와 비동거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을 비교·분석해보면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취업 여부 변인에서 모두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성별이 '남성'이고, 연령은 '40~50대'이며, 현재 기혼이고, 교육 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이며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년기 성인이 동거 부모와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두 경우에서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평균 가계 소득과 자산은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중년기 성인이 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중년기 성인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

전체 대상 2,012명 중 동거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한 557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80.4%로 19.6%의 '여성'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4>.

<표 4>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

특성		동거 자녀에게 자원 이전 (n=557)				비동거 자녀에게 자원 이전 (n=528)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	448	80.4			378	71.6		
	여	109	19.6			150	28.4		
연령	40~50대	398	71.5	57.0	3.9	186	35.2	60.6	3.6
	60대	159	28.6			342	64.8		
혼인상태	기혼	477	85.6			408	77.3		
	이혼	17	3.1			13	2.5		
	사별	63	11.3			107	20.3		
교육수준	무학/초등	131	23.5			244	46.2		
	중등/고등	325	58.3			229	43.4		
	대학/대학원	101	18.2			55	10.4		
취업여부	취업자	467	83.8			406	76.9		
	비취업자	90	16.2			122	23.1		
가계소득		40,251,390원		49,349,044원		29,923,770원		35,632,722원	
자산		141,333,300원		425,949,220원		154,659,090원		440,857,190원	

연령을 보면 '40~50대' 중년기 성인의 비율이 71.5%, '60대'의 비율이 28.6%로 '40~50대'의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동거 자녀에게 자원이전을 더 활발히 하였고, 평균 연령은 56.9세였다. 이는 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답한 중년기 성인의 특성과도 거의 일치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의 경우가 85.63%로 '이혼' 3.1%, '사별' 11.3%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자가 58.3%로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83.8%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16.2%)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간 가계소득은 평균 40,251,390원이었다. 자산의 평균은 132,603,690원이었다. 이를 통해 동거하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은 '40~50대'이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기혼'이며, 학력은 '중·고졸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가계소득은 평균 40,251,390원, 자산의 평균은 132,603,690원인 '남성'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비동거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의 중년기 성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012명 중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한 경우는 528명이었다. 이 경우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71.6%로 더 높았고, '여성'은 28.4%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은 '60대'의 연령대가 64.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50대'(35.2%) 순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0.5세이었다. 혼인 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77.3%, '이혼'한 경우가 2.5%, '사별'은 20.3%를 나타내었다. 교육 수준은 '무학·초등학교를 졸업'한 중년기 성인이 46.2%,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43.4%, '대학졸업이상'은 10.4%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76.9%를 차지하였다. 연간 가계소득은 평균 29,923,770원이었고, 자산은 평균 154,659,090원이었다. 이를 통해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은 연령이 '60대'이며,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기혼'이며, 학력은 '무학·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고, 연간 가계 소득

은 평균 29,923,770원, 평균 자산 규모는 154,659,090원인 '남성'임을 알 수 있었다.

동거 자녀와 비동거 자녀에게 자원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을 비교·분석해보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은 성별, 혼인상태, 취업여부였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기혼'이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의 비율이 동거 자녀와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두 경우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과 교육수준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중년기 성인은 '40~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서는 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중년기 성인 중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학·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진 중년기 성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계소득에서는 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중년기 성인의 평균 금액이 더 높았고, 자산의 경우에는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중년기 성인의 평균 자산규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중년기 성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은 '50~60대', '기혼'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고,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임을 알 수 있었다. 평균 가계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은 비동거 부모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거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 동거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 비동거 자녀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산은 비동거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 비동거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 동거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 동거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 순이었다.

4. 중년기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전체 2,012명 중 적어도 1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중년기 성인 670명의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 이전의 차이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중년기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N=670)

	변수	이전하지 않는다(n/%) (n=458)	이전한다(n/%) (n=212)	χ^2
성별	남	298 / 61.6	186 / 38.4	37.139***
	여	160 / 86.0	26 / 14.0	
연령	40~50대	282 / 64.7	154 / 35.3	8.542***
	60대	176 / 75.2	58 / 24.8	
혼인 상태	기혼	326 / 63.4	188 / 36.6	27.950***
	이혼	31 / 73.8	11 / 26.2	
	사별	101 / 88.6	13 / 11.4	
교육 수준	무학/초등	167 / 81.9	37 / 18.1	27.651***
	중등/고등	232 / 64.4	128 / 35.6	
	대학/대학원	59 / 55.7	47 / 44.3	
취업 여부	취업자	337 / 64.4	186 / 35.6	16.954***
	비취업자	121 / 82.3	26 / 17.7	
가계 소득 (N=605)	상	58 / 47.9	63 / 52.1	45.398***
	중	249 / 68.4	115 / 31.6	
	하	106 / 88.3	14 / 11.7	
자산	상	66 / 49.3	68 / 50.8	30.390***
	중	130 / 69.2	58 / 30.9	
	하	262 / 75.3	86 / 24.7	

*** $p < .001$

전체 670명 중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458명으로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한다'라고 대답한 212명에 비하여 약 두 배 정도 많았다. 성에 따른 차이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대답한 '남성'은 38.4%, '여성'은 14.0%로 나타났으며, 이는 χ^2 검증 결과 유의 수준 $\alpha=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을 살펴보면, '40~50대'는 35.3%, '60대'는 24.8%로 '40~50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혼인 상태에 따른 경제적 자원 이전의 차이를 보면, '기혼' 36.6%, '이혼' 26.2%, '사별' 11.4% 비율로 나타났으며, 사별에 속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무학·초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18.1%)보다 '대학졸업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44.3%)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비교했을 때 취업자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 연구(김지경·송현주, 2008; 김지연, 2006)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취업자'의 35.6%, '비취업자'의 17.7%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의 경제적 자원 이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과 자산 또한 가구주의 순자산의 많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문숙재와 김지연(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가계 소득과 자산 두 변수 모두, '상'에 속하는 집단들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 소득의 경우 '상'집단이 52.1%가 자원 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 '중'집단 31.6%, '하'집단 11.7%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이 나타내었고, 자산 또한 '상'집단의 50.8%가 경제적 자원 이전을 했다고 하여, '중'집단(30.9%)과, '하'집단(24.7%)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χ^2 검증 결과 유의수준 $\alpha=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중년기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전체 2,012명 중 적어도 1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 중년기 성인 1,95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차이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중년기 성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N=1,954)

	변수	안 준다(n/%) (n=954)	준다(n/%) (n=1,000)	χ^2
성별	남	627 / 45.0	767 / 55.0	28.772***
	여	327 / 58.4	233 / 41.6	
연령	40~50대	436 / 44.5	544 / 55.5	15.706***
	60대	518 / 53.2	456 / 46.8	
혼인 상태	기혼	673 / 45.2	816 / 54.8	37.341***
	이혼	64 / 70.3	27 / 29.7	
	사별	217 / 58.0	157 / 42.0	
교육 수준	무학/초등	395 / 53.5	344 / 46.6	14.852***
	중등/고등	464 / 47.5	512 / 52.5	
	대학/대학원	95 / 68.4	144 / 31.7	
취업 여부	취업자	625 / 43.6	808 / 56.4	58.344***
	비취업자	329 / 63.2	192 / 36.9	
가계 소득 (n=1,722)	상	119 / 40.2	177 / 59.8	24.262***
	중	462 / 45.7	550 / 54.4	
	하	238 / 57.5	176 / 42.5	
자산 (n=1,953)	상	114 / 30.6	259 / 69.4	92.450***
	중	251 / 43.8	322 / 56.2	
	하	588 / 58.4	419 / 41.6	

* $p < .05$, ** $p < .01$, *** $p < .001$

전체 1,954명 중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1,000명으로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954명 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의 55.0%는 자녀에게 자원이전을 하였고, '여성'은 41.6%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다고 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50대'는 55.5%, '60대'는 46.8%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하였다.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50대'가 자녀에게 이전한다는 것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50대'에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이 비율이 높은 이유는 20대의 자녀들에게 대학교육비와 결혼·주택구매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제공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혼인 상태에 따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차이를 보면, 혼인상태가 '기혼'인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54.8%로 나타났고, '이혼', '사별'의 경우에는 각각 29.7%, 42.0%로 나타났다. 이는 χ^2 검증 결과 유의수준 $\alpha=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무학·초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이 46.6%, '중·고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이 52.5%,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이 31.7%로 '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를 추론해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교육 수준도 높을 것이고, 교육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가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필요성을 그만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대학 졸업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비교했을 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취업자'는 56.4%, '비취업자'는 36.9%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이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두 변수 모두, '중'집단과 '하'집단보다 '상'집단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소득에서 '상'집단 59.8%, '중'집단 54.4%, '하'집단의 42.5%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하였고, 자산에서는 '상'집단이 69.4%, '중'집단 56.2%, '하'집단의 41.6%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중년기 성인의 특성은 모든 요인에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유의수준 $\alpha=0.001$ 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중년기 성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결과를 보인 변인은 성별, 연령, 혼인 상태, 취업 여부, 가계 소득, 자산이었다.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남성'이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40~50대'가 '60대'와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였다.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계소득과 자산에서는 '상'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교육 수준 변인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과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먼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로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였다. 반면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6. 중년기 성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기 성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년기성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χ^2 유의확률은 $p < .001$ 로 회귀모형이 매우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중년기 성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670)

변수		B	S.E	exp(B)
중년기 성인	성별 (여성)	1.040**	.302	2.830
	연령	-.075**	.026	.928
	혼인상태 (비혼)	-.093	.322	.911
	교육수준 (중등/고등)			
	- 무학/초등	-.455*	.236	.628
	- 대학/대학원	-.089	.258	.914
	취업여부 (비취업)	.490	.267	1.632
	가계소득 (중집단)			
	- 상집단	.556*	.242	1.744
	- 하집단	-.663*	.334	.515
	- 무응답	-.090	.308	.914
	자산 (중집단)			
	- 상집단	.593*	.256	1.809
	- 하집단	-.049	.218	.952
증여 및 상속경험	제공유무(무)	.374	.235	1.454
	수혜유무(무)	-.140	.197	.869
상수		2.236	1.486	9.356
-2 log likelihood(fitted)		734.849		
Model Chi-square		101.499***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자산이었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b값은 1.040, Odds ratio=2.830으로 중년기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경향이 약 2.8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b값은 -.075, Odds ratio=.928로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무학·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확률이 낮다($b=-.455$, Odds ratio=.628)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가족간 소득 이전 결정요인을 분석한 손병돈(1998)과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를 분석한 진재문(1999), 한국의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동기와 그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강성진(2005) 등의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가계소득에서는 '상'집단에 속하는 중년기 성인이 '중'집단에 속하는 경우보다 약 1.7배(Odds ratio=1.744) 정도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가계 소득 '하'집단에 속하는 중년기 성인의 경우에는 '중'집단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확률이 적은 것(Odds ratio=.515)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과 함께 자산 변수 또한 '상'집단을 '중'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1.8배 정도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종합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성별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산('상'집단), 가계 소득('상'집단) 순이었다.

7. 중년기 성인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기 성인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년기 성인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χ^2 유의확률은 $p < .001$ 으로 회귀모형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으며,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중년기 성인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결정 요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N=1,954)

변수		B	S.E	exp(B)
중년기 성인	성별 (여성)	.287*	.151	1.332
	연령	-.069***	.013	.933
	혼인상태 (비혼)	.101	.159	1.106
	교육수준 (중등/고등)			
	- 무학/초등	-.039	.118	.962
	- 대학/대학원	.221	.162	1.247
	취업여부 (비취업)	.550***	.119	1.732
	가계소득 (중집단)			
	- 상집단	-.180	.150	.835
	- 하집단	-.004	.132	.996
	- 무응답	-.528**	.156	.590
	자산 (중집단)			
	- 상집단	.564***	.150	1.757
	- 하집단	-.443***	.112	.642
자녀수	.309***	.050	1.361	
증여 및 상속경험	제공유무 (무)	.035	.112	1.035
	수혜유무 (무)	.271*	.107	1.311
상수		2.734***	.771	15.394
-2 log likelihood(fitted)		2482.493		
Model Chi-square		218.261***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성별, 연령, 취업 여부, 가계 소득, 자산, 자녀 수, 증여 수혜 유무이다. 먼저, 성별을 보면 $b=.287$, $Odds\ ratio=1.332$ 라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남성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은 중년기 성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 여부에서 '취업자'를 '비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확률이 약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550$, $Odds\ ratio=1.732$).

가계소득은 '중'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계소득에 대한 문항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집단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에서는 '중'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집단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b=.564$, $Odds\ ratio=1.757$), '하'집단은 '중'집단과 비교했을 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43$, $Odds\ ratio=.642$). 이는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자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손병돈(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녀 수 또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중년기 성인의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년기 성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Odds\ ratio=1.311$)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자산('상'집단)이었고, 다음으로는 취업 여부, 자녀 수, 성별 순이었다.

8. 중년기 성인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다른 세대와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미치는 효과

중년기 성인의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 유무와 수혜 유무가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 유무와 수혜 유무가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중년기 성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 여부를 종속 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χ^2 유의확률은 $p < .001$ 으로 회귀 모형이 매우 유의미하게 나왔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계 소득, 자산, 증여 제공 유무이다. 먼저 성별을 보면 $b=1.042$, Odds ratio=2.836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약 2.8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 변수에서는 중년기 성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075$, Odds ratio=.928). 교육 수준에서 '무학·초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이 '중·고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강성진(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가계 소득 변수에서는 '중'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집단은 '중'집단에 비하여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b=.584$, Odds ratio=1.793), '하'집단은 '중'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596$, Odds ratio=.551). 가계 자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었는데, '상'집단이 '중'집단과 비교하여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를 제공한 경험이 있

는 중년기 성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에게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1.416).

<표 9> 중년기 성인의 경제적 자원 이전이
다른 세대와의 경제적 자원 이전에 미치는 효과

(N=651)

변수		부모에게			자녀에게		
		B	S.E	exp(B)	B	S.E	exp(B)
중년기 성인	성별 (여성)	1.042**	.308	2.836	.614*	.260	1.847
	연령	-.075**	.027	.928	-.084**	.024	.920
	혼인상태 (비혼)	-.195	.324	.823	.072	.272	1.074
	교육수준 (중등/고등)						
	- 무학/초등	-.445*	.238	.641	-.042	.213	.959
	- 대학/대학원	-.076	.262	.927	.338*	.262	1.402
	취업여부 (비취업)	.460	.269	1.584	.466	.229	1.593
	가계소득 (중집단)						
	- 상집단	.584**	.244	1.793	-.653*	.252	.521
	- 하집단	-.596†	.334	.551	-.036	.251	.964
	- 무응답	-.083	.311	.920	-.444	.296	.641
	자산 (중집단)						
	- 상집단	.575*	.259	1.777	.835**	.273	2.305
	- 하집단	-.039	.219	.962	-.381†	.201	.683
	자녀수	-.036	.108	.964	.391***	.096	1.479
증여 및 상속경험	제공유무 (무)	.348*	.235	1.416	.042	.219	1.043
	수혜유무 (무)	-.168	.198	.845	.368**	.187	1.446
자녀와의 자원이전	자녀에게 제공유무(무)	.200	.195	1.221			
	자녀로부터 수혜유무(무)	.227	.204	1.254			
부모와의 자원이전	부모에게 제공유무(무)				.204	.194	1.226
	부모로부터 수혜유무(무)				.119	.440	1.126
상수		2.340	1.540	10.384	3.142	1.386	23.161
-2 log likelihood(fitted)		727.948			804.537		
Model Chi-square		93.689***			92.216***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계 소득, 자산, 자녀 수, 증여 수혜 유무이다. 먼저, 성별을 보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약 1.8배 정도 높은 것($b=.614$, Odds ratio=1.847)으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령에서 또한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향의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중년기 성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낮은 것($b=-.084$, Odds ratio=.920)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이 '중·고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변수에서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중'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집단이 '중'집단에 비하여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낮은 것($b=-.653$, Odds ratio=.521)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자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었는데, '상'집단이 '중'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높았고 '하'집단은 '중'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381$, Odds ratio=.683). 또한 증여를 수혜한 경험이 있는 중년기 성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dds ratio=1.446). 반면, 중년기 성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 유무와 수혜 유무는 각각 다른 세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의 차이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성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를 보면, 비동거 부모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자원의 액수와 빈도가 더 높았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혼의 40~50대 남성의 경제적 자원이전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동거부모보다는 비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평균 제공 액수 또한 비동거 부모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사람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이는 아들이 딸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더 활발히 한다고 밝힌 김지경과 송현주(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은 '40~50대'가 가장 많았으며, 혼인 상태는 '기혼'이고, '중·고등학교 졸업'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실태를 살펴보면, 동거 자녀와 비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진 않았다. 제공 액수에 서는 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액수가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 많았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사람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연령은 동거 자녀에게 자원 이전

을 하는 경우에는 '40~50대', 비동거 자녀에게는 '60대'의 비율이 높았다. 혼인 상태는 '기혼'이며, 교육 수준은 동거 자녀에게 자원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졸업', 비동거 자녀에게 자원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취업여부는 두 경우 모두 '취업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샌드위치 세대인 중년기 성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양상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보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 이유로는 연령이 50대인 중년기 성인의 수가 전체 연구 표본 2,012명 중 997명이었으며, 이것은 거의 5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중년기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는 시기라고 밝힌 선행 연구처럼(김병윤, 2002) 중년기 특히, 연령이 50대가 되는 시기에는 자녀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면서 부모보다는 자녀에게 더 많은 중년기 성인들이 더 많은 액수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경제적 자원이전의 집단 간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낸 것은 성별, 혼인상태, 취업여부, 자산이었다. 성별은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데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높았고, 혼인 상태의 경우에는 '이혼', '사별'과 비교하여 '기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여부에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산 변수에서는 '상'에 속하는 집단들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의 순자산이 많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문숙재와 김지연(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세대간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중년기 성인과 부모, 중년기 성인과 자녀간의 자원이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성별, 연령, 가계소득, 자산이었다. 성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 변수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낮았다. 또한 가계소득과 자산에서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에서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년기 성인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가계 소득, 자산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경향이 약 2.8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수준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무학·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확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손병돈(1998)과 진재문(1999), 강성진(2005) 등의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가계 소득에서는 '상'집단에 속하는 중년기 성인이 '중'집단에 속하는 경우보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가계 소득과 함께 자산 변인 또한 '상'집단을 '중'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중년기 성인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성별, 연령, 취업 여부, 가계 소득, 자산, 자녀 수, 증여 및 상속경험의 수혜 유무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높았다. 취업 여부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년기 성인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에서는 '상'에 속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

전이 더 활발하였다. 이는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자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손병돈(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은 이처럼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자녀에게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였을 때 사회의 양극화와 부의 세습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년기 성인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년기 성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에게 자원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년기 성인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 하는데에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 유무와 수혜 유무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지원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부모의 개인적 자원 중 배우자 유무였을 뿐 개인적 자원과 관련된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김진(2008)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에 있어서 교환이론적 동기를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이타적 동기와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경제적 자원 이전이 주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설명 가능한 내용이며, 전체 2,012명 중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중년기 성인의 비율은 낮았다(동거 부모 3.5%, 비동거 부모 11.4%). 노부모보다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진 결과와 연결하여 분석해보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 더 많이 이전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모에 대한 효개념이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 후 자녀들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자원에 의해 노후 생활을 기대

했던 부모 세대들은 삼세대 가족관계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이전에 의한 노후 보장에 국가적 차원의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년기 성인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데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 유무와 수혜 유무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이전받은 기간이 1년으로 제한이 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때문에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사 기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제적 자원 이전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결과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되어진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먼저 본 연구가 2차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국민노후보장패널은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 가구원의 부모와 자녀에 관련된 변수에 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중년기 성인이 샌드위치 세대로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샌드위치 세대가 되도록 하는데 부모와 자녀 관련 변수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과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년기 성인의 부모와 자녀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자원이전 등의 변수를 함께 반영하여 중년기 성인, 부모, 자녀 삼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이전의 교류방향을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이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이전받은 것에 대한 유무와 액수만 이 분석 가능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제한점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제한점을 보완하여 중년기 성인과 부모, 중년기 성인과 자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경제

적 자원의 유무와 액수 등에 대해 함께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이전받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간에 경제적 자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전이 되고, 동기는 무엇인가 알 수 없어서 이타주의 이론과 교환이론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어 좀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경제적 자원이전의 이해를 위해서 중년기 성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관해서도 파악이 이루어지고,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혹은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의 정확한 시기와 액수와 기대 사항, 용도 등도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성진 · 전형준(2005).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10(1) 23-46.
- 고선강(2002). 노부모의 금전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53-64.
-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2(2), 209-229.
- 고효정 · 김혜영(1997). 중년기 여성의 우울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2), 117-138.
- 김기덕 · 손병돈(1995). 1982-92 년간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변화 추세. 사회복지연구, 6(1), 91-115.
- 김지경(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복지연구, 24(3), 77-98.
-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논문집 33('92.12), 31-56.
- 김명자 · 안선영 · 한정화(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97-110.
- 김미(1992).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의식 조사. 논문집, 17('92.9), 231-251.
- 김병윤(2002).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순미 · 박미려(2008). 중 · 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김정석 · 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

- 국노년학, 20(2), 155-168.
-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24(3), 77-98.
-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지연(2006). 성인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2008). 한국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지원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욱(2004).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171.
- 김태현·강인(1990).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03-117.
- 김희삼(2008). 고령 가구의 소득과 사적 소득이전. 연금포럼, 31, 55-65.
- 대구인터넷뉴스(2008). '결혼 후, 부모로부터 독립하겠다',
<http://www.dginews.co.kr/ArticleView.asp?intNum=6955&ASection=001008>.
- 문숙재·김지연(2006). 소득계층에 따른 경제적 자원교류 결정요인 분석 : 성인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자원교류를 중심으로. 2006(1), 329.
- 문아람(2008). 노년기 가족관계 특성이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려(2007). 은퇴노인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희선(2002). 중, 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

- 기준. 대한가정학회지, 40(6), 99-116.
- 배희선(200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규모 : 증여와 상속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4), 81-106.
- 배희선·최현자(2002).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 대한가정학회지, 40(6), 99-115.
- 서리나(1994). 주부의 가족자원적정지각과 대상별 가정관리 수행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재민(2006). 패널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노동리뷰, 2006, 75-84.
- 손병돈(1997). 가족간 소득이전행위에 관한 연구. 상황과 복지, 1997(2), 261-267.
- 손병돈(1998). 가족간 소득이전 결정요인의 계층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11(0), 79-106.
- 손병돈(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39, 157-179.
- 송은경(2005). 성인자녀와 비동거 부모간의 경제적 자원교류 행동에 관한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경희(1996).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 부양: 의무에서 성숙의 차원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65-276.
- 윤선영(2009). 노인가구의 연령집단별 사적소득이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47-562.
- 이기춘·조은정(1992). 도시 신혼기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95-113.
- 이희배(2005). 친족상속법 요해, 제일법규
-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2002). 가정관리학. 신정출판사.

- 정의신(2008). 계층별 사적이전에 대한 분석. 사회경제평론, 191.
- 정기원(2001).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24(1), 123-148.
- 정일영(2008). 세대간 지원교환이 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창원(2008). 워킹파더. 위너스북.
- 진재문(1999).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분석. 사회복지연구, 13(0), 167-199.
- 통계청(2006). 사회통계조사결과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결과
- 하봉채(2005). 중년기 성인의 노부모 부양여부와 부양의식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민아(2004). 세대 간 지원교환관계와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민아 · 한경혜(2004). 세대간 지원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 한지수 · 홍공숙(2007).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자녀의 시장노동 참여 및 참여 시간 결정 요인 : 기혼여성자녀와 노부모와의 시간자원 이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6), 61-75.
- 홍지연(2007). 중년기 여성 수도자의 자아정체감, 생의 의미수준과 중년기 위기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 Dorothy A. Miller(1981). **The sandwich-generation: adult children of the aging**.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419-423.
- Grundy. E. Henretta. J. C.(2006).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A new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d by the 'sandwich generation'. *Ageing&Society* 26, 2006, 707-722.

McGarry, K. & Schoeni, R. F.(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McGarry, K. & Schoeni, R. F.(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 Results from the asset net worth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Sabatelli, R. M., & Shehan, C. L.(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In P. Boss, W.

Scharlach, A. E. (1987). **Role strain in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27, 627-631.

Thibaut, J. W., &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John Wiley & Sons.

Walker, A. J., Pratt, C. C., Shin, H., & Jones, L., L. (1990). **Motives for parental caregiving and relationship quality.** *Family Relations*, 39, 51-56.

ABSTRACT

A Study on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Economic Resources among Middle-aged Adults

Yang, Eun young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of economic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the middle-age group, analyzes the differences in such transfers in relation to socio-demographic traits and distinguishes the influencing factor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First, what are the conditions of intergenerational economic transfers among middle-aged adults and what characteristics can be distinguished in the individuals transferring the resources? Second, what differences can be found in the intergenerational economic transfers of middle-aged adult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traits? Third,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ransfers of economic resourc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the

middle-age group?

The SPSS 14.0 statistic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in which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and range were calculated. Also, cross tabulations and χ^2 tests were conducted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as for the conditions of economic transfers by middle-aged adults to their parents, most of the children were in the age group of 40s and 50s, married, middle or high school graduates and currently economically active. Those transferring economic resources to parents living separately from them showed higher average family income and assets. Regarding economic transfers by parents to their children, most of those parents transferring to children living under the same roof as them were in their 40s and 50s, while those transferring to children living separately from them were mostly in their 60s. The former group showed a higher rate of middle or high school graduation while the latter showed a higher rate of primary school or lower education. In both groups, most were married and showed a significantly high employment rate. The average family income was higher in the case of transferring to children living with them than children living separately, and the average assets were higher in the case of transferring to children living separately compared to children living with them.

Second, regarding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traits, 38.4% of men and 14.0% of women transferred economic resources to their parents. As

for age groups, 35.3% of children in their 40s and 50s and 24.8% of children in their 60s made economic transfers to their parents. Regarding the marriage status,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status, the married group showed the highest rate of economic transfers to their parents with 36.6%, the group with the college graduation or higher educational level showed the highest rate with 44.3% and the employed group showed a higher rate compared to the unemployed group. Also, groups scoring high on the two factors of average family income and assets showed high rates of economic transfers to their parents. As for economic transfers by parents to their children, it applied to 54.1% of men and 39.3% of women. Regarding age groups, 55.5% of parents in their 40s and 50s and 46.8% of those in their 60s replied that they made economic transfers to their children. Regarding the marriage status,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status, the married group with 54.8% showed the highest rate compared with the divorced and bereaved groups, the 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ion group and the employed group showed the highest rate of economic transfers to their children. As for family income and assets, groups higher up showed high rates of economic transfers to their children.

Third, factors influencing transfers of economic resources by middle-aged adults to their parents were found to be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and assets. Factors affecting economic transfers by parents to their children were found to be gender, age, employment status, family income, assets, and experience of being the beneficiary of gift or inheritance of assets or lack thereof.

Fourth, whether middle-aged adults transferred or received economic

resources as parents or children, it was found that this transac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economic transfers to another generation.

개인용 설문지(신규)



승인번호 제32201호



제2차(2007년)조사

가구ID

--	--	--	--

개인조사제ID

--	--	--	--	--	--	--	--

개인원표본여부

1차년도 조사여부

1. 원표본	1. 조사
2. 원표본 이남	2. 미조사

설문시작

__월	__일	__시	__분
-----	-----	-----	-----

응답자	1. 본인	성별	연령
본인여부	2. 대리		
가구주와의 관계			

본 조사에서 습득된 개인의 비밀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측정항목	측정기준	참고
Pa. 취업자 - 직업력 및 퇴직	현재	
Pb. 비취업자 - 직업력 및 은퇴		
Pc. 노후준비		
Pd. 공적연금		
Pe. 개인연금		
Pf. 건강보험		※ '현재' : 조사시점
Pg. 소득 및 이전지출 *	작년 한해	※ '작년 한 해' : 2006.1.1~2006.12.31
Ph. 자산 및 부채 *	현재	
Pi. 상속 및 증여 *	일생	
Pj. 가족관계 *	현재	
Pk. 삶의 만족도 및 건강		

* 표시된 측정항목은 부부단위로 측정된 문항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개인응답자의 설문 시작 문항 판별

개인응답자 구분	경제활동상태		설문 시작 문항
지난 조사 참여자	지난 조사 당시 취업자	→	“기존” 설문지 지난 조사 확인 으로 갈 것
	지난 조사 당시 비취업자		“기존” 설문지 일자리 경력 변화 현황 Q1 으로 갈 것
신규 조사 대상자	현재 취업자	→	“신규” 설문지 Pa1 (취업자-현재 일자리 취업형태) 로 갈 것
	현재 비취업자	→	“신규” 설문지 Pb1 (비취업자-생애 근로경험 유무) 로 갈 것

-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통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저가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 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에 해당함.
- **비취업자** : 실업자(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및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를 의미함. 주 18시간 미만 근로의 무급가족종사자

Pg. 소득 및 이전지출

Pg1 작년 한 해 동안 규약에게 근로소득(세전)이 있었습니까?
[P02, PW, PL]

- 1. 있었다 → Pg1-1
- 2. 없었다 → Pg2

· **근로소득** :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즉 세전소득을 의미하며 직장소득의 경우 종수입액/종근매달액에서 월오경비(재무규약에 본인 외의 인건비, 사업관련 부재의 이차부담, 피고용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 등)를 제외한 금액
 - 이장/동반장 소득 포함, 손자녀 돌봄노동의 당기는 제외

Pg1-1 근로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P02, PW, PL]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연간							

Pg2 작년 한 해 동안 규약 및 규약의 배우자에게 금융소득이 있었습니까?
[P02, PW, PL]

- 1. 있었다 → Pg2-1
- 2. 없었다 → Pg3

Pg2-1 금융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응답에 주십시오.
[P02, PW, PL]

가. 예·적금이자/국·공채권의 이자

-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 2. 없었다

나. 주식 등의 배당금

-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 2. 없었다

다. 주식 매매차익(실현되지 않은 차익은 제외)

-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 2. 없었다

라. 실적으로 벌려 준 돈에 대한 이자

-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 2. 없었다

Pg3 작년 한 해 동안 규약 및 규약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소득이 있었습니까?
[P02, PW, PL]

- 1. 있었다 → Pg3-1
- 2. 없었다 → Pg4

Pg3-1 부동산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응답에 주십시오.
[P02, PW, PL]

가. 임대(월세로 받은 것)

-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 2. 없었다

나. 각종 임대료(임세 제외)

-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 2. 없었다

다. 부동산 매매차익(실현되지 않은 차익은 제외)

-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 2. 없었다

라. 권리금 차익

-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 2. 없었다

마. 기타(_____)

-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 2. 없었다

Pg4 직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P02, PW, PL]

1. 있었다 → Pg4-1
2. 없었다 → Pg5

Pg4-1 귀하가 받으신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연간수령액, 수령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P02, PW, PL]

급여종류별 번호			총 수령 개월 수		
					개월
연간 총 수령액					
만원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일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11) 노령연금 (12) 장애연금 (13) 유족연금 (14) 분할연금 (15) 연안일시금	(21) 퇴직연금 (22) 장애연금 (23) 유족연금 (24) 퇴직(연금)일시금
사회연금	군인연금
(31) 퇴직연금 (32) 장애연금 (33) 유족연금 (34) 퇴직(연금)일시금	(41) 퇴직연금 (42) 장애연금 (43) 유족연금 (44) 퇴직(연금)일시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신제보험
(51) 퇴직연금 (52) 장애연금 (53) 유족연금 (54) 퇴직(연금)일시금	(61) 신제우업급여 (62) 신제장애연금 (63) 신제유족연금 (64) 신제(연금)일시금
고용보험	보훈연금
(71) 구직(실업)급여	(81)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등 제수당
(91) 연금급여	(101) 경부연금 (102) 노인교통수당 (103) 장애자수당 (104) 장애이동부형수당 (105) 이동양육수당
기타	
(110-)	

- [사회보장급여의 종류]에 제시되어 있는 급여종류의 순서에 따라 응답
- 일시금으로 수령한 모든 급여는 연간 총 급여액에만 응답

Pg5 작년 한 해 동안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가족, 기타 친인척, 이혼한 배우자, 사회/종교단체로부터 현금이나 현물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PG2, PW, PL]

1. 있었다 → Pg5-1
2. 없었다 → Pg6

- 현금지원 : 용돈, 생활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의 목적으로 가구원 가족 또는 비가구원 가족(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이 대가없이 준 것,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양육 및 생활비 지원금, 사회/종교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금전적 보조금, 종교단체가 은퇴한 성직자에게 주는 연금이나 생활보조금 등
- 현물지원 : 동사무소를 통해 받은 쌀 등 후원물품, 따로 사는 가족, 기타 친인척 등이 보내주는 물품(쌀 등),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받은 후원물품, 복지관 등에서 받은 도서책자물이나 편의서비스 등 정기적으로 받은 것(시가 원산)
- 가족,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1회성 선물(쌀, 우유, 생일 등에 드리는 용돈 포함) 제외

Pg5-1 누구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PG2, PW, PL]

가-1. 동계 가족 : 부모

1. 있었다 - 연간 총액

삼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가-2. 동계 가족 : 자녀(손자녀 포함)

1. 있었다 - 연간 총액

삼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가-3. 동계 가족 : 기타()

1. 있었다 - 연간 총액

삼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나-1. 비동계 가족 : 부모

1. 있었다 - 연간 총액

삼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나-2. 비동계 가족 : 배우자

1. 있었다 - 연간 총액

삼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나-3. 비동계 가족 : 자녀(손자녀 포함)

1. 있었다 - 연간 총액

삼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나-4. 비동계 가족 : 형제자매

1. 있었다 - 연간 총액

삼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다. 기타 친인척

1. 있었다 - 연간 총액

삼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라. 이혼한 배우자

1. 있었다 - 연간 총액

삼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마. 사회/종교단체 지원금

1. 있었다 - 연간 총액

삼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바. 종교단체에서 주는 성직자연금 등

1. 있었다 - 연간 총액

삼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사. 기타()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Pg6 직년 한 해 동안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가족, 기타 친인척, 이혼한 배우자에게 정기적인 현금이나 현물지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PG2, PW, PL]

1. 있었다 → Pg6-1
2. 없었다 → Pg7

Pg6-1 누구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PG2, PW, PL]

가-1. 동계 가족 : 부모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가-2. 동계 가족 : 자녀(손자녀 포함)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가-3. 동계 가족 : 기타()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나-1. 비동계 가족 : 부모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나-2. 비동계 가족 : 배우자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나-3. 비동계 가족 : 자녀(손자녀 포함)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나-4. 비동계 가족 : 형제자매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다. 기타 친인척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라. 이혼한 배우자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마. 기타()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Pg7 직년 한 해 동안 귀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습니까?

[PG2, PW, PL]

1. 있었다 → Pg7-1
2. 없었다 → Pg8

Pg7-1 연금형태의 정기적인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PG2, PW, PL]

가. 개인연금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역	일역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나. 퇴직연금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액	일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다. 기타(역모기지론,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 등)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액	일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Pg8 직년 한 해 동안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에게 Pg1~Pg7에서 응답한 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이 있었습니까?

[P02, PW, PL]

- 1. 있었다 → Pg8-1
- 2. 없었다 → Pg9

Pg8-1 기타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P02, PW, PL]

가. 보험금(계약금 포함)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액	일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나. 퇴직금(임시금 형태)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액	일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다. 상속/증여받은

현금이나 현물(그림, 희원권, 귀금속 등)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액	일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라. 기타(복합 담보금, 받은 경조금, 특이금표, 저작료, 인세소득 등)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액	일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Pg9 직년 한 해 동안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저축을 하셨습니까?

[P02, PW, PL]

- 1. 예 → Pg9-1
- 2. 아니오 → Ph1

Pg9-1 저축한 금액은 총 얼마였습니까?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P02, PW, PL]

가.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액	일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나. 개인연금 불입액(보험, 신약)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액	일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다. 저축성보험 불입액

(개인연금을 제외한 연금형 금융상품 포함)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액	일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라. 적금펀드 납부금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액	일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마. 기타(계 납입금 등)

1. 있었다 - 연간 총액

심액	일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었다

Pg9-2 직년 한 해 동안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저축을 한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중에서 결정적인 이유를 중요한 순으로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P02, PW, PL]

1순위		2순위	
-----	--	-----	--

1. 주택마련
2. 자녀 등의 교육비 마련
3.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
4. 결혼 및 생계비 준비
5.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의 대비
6. 노후생활 대비
7. 여행 및 여가생활
8. 사업(투자)자금 마련
9. 차입금(주택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원금상환
10. 상속
11. 기타(_____)

Ph. 자산 및 부채

Ph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 소유입니까?

[P02, PW, PL]

	백	십	일	
1. 예 - 지분율				%
2. 아니오				

Ph2 현재의 거주주택 외에도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 또는 전/월세 보증금을 내고 임차한 다른 주택이 있습니까?

[P02, PW, PL]

1. 있다 → Ph2-1
2. 없다 → Ph3

Ph2-1 기타 소유(임차) 주택의 현재가격은 얼마입니까?

[P02, PW, PL]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백	십	일	
지분율				%

- 주택의 현재가격 : 소유의 경우, 주택을 지금 당장 팔려고 내놓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임차주택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의미

Ph3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전무 또는 일부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P02, PW, PL]

1. 있다 → Ph3-1
2. 없다 → Ph4

Ph3-1 사업체의 현재가격은 얼마입니까?

[P02, PW, PL]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백	십	일	
지분율				%

- 사업체의 현재가격 : 그(들) 사업체를 지금 당장 팔려고 내놓

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액에 그(들) 사업체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
 - 농어가 영대 사업체의 경우,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사육 가축, 농기계, 각종시설, 선반 등)을 현금화할 경우의 자산가치 의미(소유주력, 임대 및 보지 제외)

Ph4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Ph1~Ph3에서 응답한 주택 또는 사업체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P02, PW, PL]

1. 있다 → Ph4-1
2. 없다 → Ph5

Ph4-1 그 부동산의 현재가치는 얼마입니까?

[P02, PW, PL]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지분율

백	십	일

 %

· 부동산의 현재가액 : 부동산(건물, 임대, 보지 등)을 현금 당장 팔려고 내놓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액에 소유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

Ph5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P02, PW, PL]

1. 있다 → Ph5-1
2. 없다 → Ph6

Ph5-1 금융자산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P02, PW, PL]

가.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나. 개인연금 불입액(보험, 신탁)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다. 저축성보험 불입액

(개인연금은 제외한 연금형 금융상품 포함)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라. 적립펀드 납부금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마. 주식투자자금(우력사주 포함)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바. 회사채, 국·공채 등 유가증권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사. 개인적으로 별다른 든/어짜 딱지 않은 것들 등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 어짜 딱지 않은 것들: 지금까지 부은 것들이 금융자산이 될(어짜) 것들을 탄 경우 앞으로 부어야 할 것들(일부금)은 부해야 해당함으로써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아. 기타 금융자산(_____)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Ph6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체, 부동산, 금융자산 이외의 기타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P02, PW, PL]

1. 있다 → Ph6-1
2. 없다 → Ph7

· 기타자산 : 직접적인 사업체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승용차, 보트, 선박, 벽시, 항공기, 농기계, 콘도 및 골프 등 각종 위임권, 규금속(예술품), 그림 등 소장예술품 등

Ph6-1 기타자산의 가치총액은 얼마입니까?

[P02, PW, PL]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 기타자산의 가치총액 : 기타자산을 지금 당장 팔려고 내놓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격에 그(들)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곱한 자산가치를 의미

Ph7 현재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무채가 있습니까?

[P02, PW, PL]

1. 있다 → Ph7-1
2. 없다 → Ph8

· 부채 :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빌린 돈의 잔액, 사채나 선인적으로부터 빌린 돈, 주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것들, 연대보증 등으로 전 빛의 잔액 및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Ph7-1 현재 기준으로 무채 잔액은 총 얼마입니까?

[P02, PW]

가. 금융기관 부채(역모기지론 포함)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나. 비금융기관 부채(회사를 통해 빌린 돈 등)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

(사채나 선인적으로 빌린 돈 등)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라.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것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 미리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것 : 먼저 돈은 타서 앞으로 계속 돈을 부어야 하는 것을 의미.

바. 기타()

1. 있다 →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Ph7-2 현재 무채를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P02, PW]

1. 교육비
2. 주택미련
3. 내구재(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구입
4. 생활비
5. 결혼, 상제비
6. 질병, 재난
7. 창업 또는 사업 자금
8. 재테크(주식 및 부동산 투자)
9. 보증
10. 자녀지원
11. 임대보증
12. 기타()

Ph8 직년에 무채를 상환한 적이 있었습니까?

[P02, PW]

1. 있었다 → Ph8-1
2. 없었다 → Ph8-2

Ph8-1 무채의 임금과 이자 상환금(최근 연 액 기준)은 얼마였습니까?

[PO2, PW]

가. 금융기관 부채(역모기지론 포함)

1. 있다 - 연간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나. 비금융기관 부채(회사를 통해 빌린 돈 등)

1. 있다 - 연간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

(사채나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1. 있다 - 연간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라.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1. 있다 - 연간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것

1. 있다 - 연간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바. 기타(_____)

1. 있다 - 연간 총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없다

Ph8-2 최근에 무채를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PO2, PW]

1. 교육비
2. 주택마련
3. 내구재(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구입
4. 생활비
5. 결혼, 상제비
6. 질병, 재난
7. 창업 또는 사업 자금
8. 자택크(주식 및 부동산 투자)
9. 보증
10. 자녀지출
11. 임대보증
12. 기타(_____)

PI. 상속 및 증여

PI1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일생 동안** 보지나 주택 등 현금이나 현금형태로 상속이나 증여(종전재산, 신탁재산 등 포함)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P02, PW]

- 1. 있다 → Pi1-1
- 2. 없다 → Pi2

PI1-1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셨다면 누구로부터 언제 받으셨으며, 받을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응답에 주십시오.

[P02, PW]

가. 양가의 조부모/부모

1. 예

▶ 받은 연도 1

--	--	--	--	--

 년

▶ 받은 연도 2

--	--	--	--	--

 년

▶ 상속이나 증여 당시의 금액 1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상속이나 증여 당시의 금액 2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아니오

나. 서방한 배우자

1. 예

▶ 받은 연도 1

--	--	--	--	--

 년

▶ 받은 연도 2

--	--	--	--	--

 년

▶ 상속이나 증여 당시의 금액 1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상속이나 증여 당시의 금액 2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아니오

다. 기타()

1. 예

▶ 받은 연도 1

--	--	--	--	--

 년

▶ 받은 연도 2

--	--	--	--	--

 년

▶ 상속이나 증여 당시의 금액 1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상속이나 증여 당시의 금액 2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2. 아니오

- 동일 물건에 대해 여러 명의 명의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지분만 응답
- 동일 범주의 상속(지)/증여(지)가 두 번 또는 두 명 이상일 경우, 금액이 큰 순으로 두 개만 응답

PI2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일생 동안**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P02, PW]

- 1. 있다 → Pi2-1
- 2. 없다 → Pi1

PI2-1 누구에게 주로 물려주셨습니까?

[P02, PW]

1순위		2순위	
-----	--	-----	--

- 1. 장남
- 2. 장녀
- 3. 차남 이하의 아들
- 4. 차녀 이하의 딸
- 5. 자녀 모두에게 골고루
- 6. 영재자녀
- 7. 기타(사위/간계 등) : ()

P12-2 재산을 물려준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당시의 가치도 총 얼마나 물려주셨습니까?

[P02, PW]

▶ 물려준 연도 1 년

물려준 연도 2 년

▶ 증여 당시의 금액 1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증여 당시의 금액 2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여러 번에 걸쳐 물려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물려준 연도를 기준으로 두 경우 응답

Ha. 가구원 인적사항

Ha1 가구원님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상의 성명

· **가구원** : 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혈연이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로 연결된 구성원

Ha2 가구원 _____ 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H02, HW, HL, SD]

1. 남
2. 여

Pj. 가족관계

Pj1 귀여 또는 귀여의 배우자는 살아계(동거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생존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총 몇 남 몇 녀입니까?

[P02, PW, PJ]

1. 있다 → 총 남 녀

2. 없다 → Pj4

· **자녀** : 직점 낳은 친자녀와 병적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양자녀는 물론 계혼으로 얻게 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

Ha3 가구원 _____ 님은 현재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H02, HW]

[참조 : 가구주와의 관계 CODE]

· **가구주** :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원으로서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세대주나 호주와 다를 수 있음.

Ha4 각구원 _____님의 현재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H02, HW]

만

--	--	--

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만 연령

Ha5 각구원 _____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H02]

1. 배우자 있음
2. 이혼
3. 사별
4. 미혼

Ha6 각구원 _____님은 현재 귀대에 함께 살고 있습니까?

[H02]

1. 예 → Ha7
2. 아니오 → Ha6-1

Ha6-1 각구원 _____님이 현재 귀대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H02]

1. 직장(직업)
2. 건강상의 이유(요양 등)
3. 가족간 불화(별거 등)
4. 학업
5. 구직
6. 기타(_____)

Ha7 각구원 _____님은 현재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H02]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0. 미취학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과) 6. 대학원 | } | <p>→ Ha8</p>

<p>→ Ha7-1</p> |
|---|---|--|

Ha7-1 각구원 _____님의 현재 최종학력 이수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H02]

1. 졸업
2. 수료
3. 중퇴
4. 재학
5. 무학

Ha8 각구원 _____님의 현재 경제활동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H02, SD]

0. 비경제(만 15세미만)
1. 취업자
 11. 임금근로자
 12. 고용주/자영업자
 13. 무급가족종사자
2. 비취업자

·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사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무직자도 취업자에게 해당함.

• **비취업자** : 실업자(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잔여 일할 미치지 못하였으며 일직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마쳤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및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를 의미함. 주 18시간 미만 근로의 무급가족종사자

Ha9 지난(2005년)조사 이후 현재까지 분가한 각구원이 있습니까?

[H02, SD]

1. 있다 → Ha9-1
2. 없다 → Ha10

Ha9-1 분가시키는 연재입니까?

[H02, SD]

--	--	--	--

년

--	--

월

Ha9-2 분가사유는 무엇입니까?

[H02, SD]

1. 혼인미여서 따로 살게 됨
2. 이혼미여서 따로 살게 됨
3. 영외 유학이나 이민 때문에
4. 직장 때문에
5.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건이 되어 분가
6. 기타(_____)